

自律化에의 過程



釜山大 總長 徐 柱 實

그동안 우리는 民主化·自律化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난 폭발적 욕구와 조급한 실현을 위한 전환기적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그 성취 과정에서의 좌절과 고통을 함께 맛보아 왔다. 막혔던 붓물이 터져 나오듯 홍수처럼 억제되었던 욕망들이 분출된 저간의 여러 현상들은 과연 민주화·자율화를 우리 사회와 대학가에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분별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기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으로 보아야만 할 것인가?

이는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兩是論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陰暗이 다시 엿갈린다.

우리는 억눌렸던 상태에서 벗어난 活火山처럼 터져 나오는 감정을 가누기 어려웠던 감격스러운 때를 해방 이후 몇 번이나 경험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 해방된 감격에 넘쳐 분별을 찾지 못했던 혼란과 무질서의 세월, 4·19로 자유당 독재가 무너지고, 잃었던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를 회구하던서 거리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기도했던 거리 정치 시절의 혼란, 그리고 10·26 직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려는 각계의 주장들은 야생마처럼 무절제하게 난무하였다. 4·19의 소중한 교훈과 10·26이 가져다 준 민주화의 好機를 끝내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는 6·29 선언 이후 또다시 민주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의 기회만은 슬기롭게 넘겨 여태까지의 쓰라린 경험인 혼란과 무질서, 무책임한 욕구 분출을 과감히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환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은 결코 지난 역사를 단축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다. Hobbes의 社會相을 방불케 하는 현상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한편,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러한 민주화 과정의 고통과 혼란을 보다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해방 이후 靑雲의 대립과 갈등, 자유당 독재 종식과 더불어 나타난 과도기적 혼란, 10·26 유신 독재 이후의 엄청

난 진통, 그리고 6·29 선언 이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및 사회적 소용돌이 (vortex) 등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자율화로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한때의 전환기적 진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과 바람직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진통이요,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행복한 고통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대한 열망과 의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나, 그것은 단순히 열망이나 의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體質化하기 위해서, 즉 민주화·자율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民主的 價値와 秩序로 우리 몸이 內面化시키는 슬기와 발상의 일대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가치와 질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그것이 자리잡을 수 있는 制度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스스로의 가치나 인식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적 합리주의, 개방적 집합주의 등 수용할 수 있는 질서와 가치가 함께 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 도달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소중한 기회가 어느 의미에서는 언제나 같은 현상의 반복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제도만 강조되었지 스스로의 가치나 의식 구조에는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타성적·만성적 현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자기의 자유·권리는 소리 높여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권리는 아랑곳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기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면 남의 인격도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인간 존중의 기본 원리라든지, 민주주의는 목적만이 아니라 그 실현의 방법이나 수단도 역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節次的 民主主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기 주장과 함께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적 자세라든지,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방종이나 자의적인 행동보다는 스스로를 統制할 수 있는 슬기가 반드시 필요하든지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 많은 측면에서 의식의 커다란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민주화·자율화 과정 속에서 이번만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는 민주화·자율화에의 과잉되고 성급한 의무만 가지고 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관을 새로이 하고, 새로운 질서의 체질화가 아울러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평등 의식만 해도 그것은 단순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꼭 같아야 한다는 片面的 觀念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의 공존, 인간성을 증시한 평등 의식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질서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合理的인 思考가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번에 맞은 귀중한 민주화·자율화에의 과정을 우리 사회, 아니 우리 대학가에 다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도록 大學人 스스로가 협력하고 반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